

# “광주시·전남도, 중국 교류지원팀 공동 운영을”

## 광주전남연 ‘중 신경경제개발 5개년 계획’ 논문서 제시

### 친환경자동차·관광벨트 등 상생 컨트롤타워 필요

광주시와 전남도가 최근 발표된 중국 신경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해 대중국 교류에 나설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공동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전남연구원 조창완 선임연구위원과 흥영성 전문연구원은 1일 ‘광전 리더스 인포’에 ‘중국 신경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지역 대응전략’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 따르면 중국 신경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혁신, 균형, 친환경, 개방, 공유 등에 발전이념을 두고 있다.

주요 발전 전략은 중고속 성장 유지, 신성장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 민생 향상 등 지속 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4+3’ 전략을 기초로 한 지역협력발전과 도농 간 균형성장 및 농촌지역 빈민완전 해소, 1가구 2자녀 정책 전면 시행을

공표해 기존의 ‘안정적 고속성장’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 선임연구위원 등은 지역차원의 대응 전략으로 서부 및 동북부지역 진출 지원을 위한 시·도 공동의 ‘전라권통상사무소’(가칭) 설치 등 대중국 교류 및 실질적 교류 확대를 위한 컨트롤타워 운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농기계, 신재생에너지 등 지역특화산업 및 경쟁력 강화, 농어업 부문에서는 수출전문 첨단농생명전력수출단지조성 및 유기농수산물산업,

첨단양식산업 육성 등의 과제를 도출했다.

이어 한·중 교류 우호 인물 등 친중국 문화관광콘텐츠 공동 개발 및 광역권 차이나 관광벨트 구축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차이나 관광벨트 및 관광인프라와 대중국 상생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대중국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시·도 공동의 컨트롤타워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위안부 할머니 발언에 눈물 흘리는 중학생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1233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김복동 할머니의 발언을 들던 간디중학교 학생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시의회 문화관광체육실 교육위원회로 이관

### 상임위 소관부서 일부 조정

### 광산세무서 신설촉구안 채택

광주시의회가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일부 조정했다.

광주시의회는 1일 상임위원회 직무 조정 연구 전담(TF)팀 회의 결과 행정자치위 소관인 문화관광체육실을 교육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가 시장 비서실을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이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로 했던 방안은 제8대 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한발 물러났다. 일부에서는 시의회가 집행부의 로비에 꼬리(?)를 내린 것 아니냐는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시의회는 현재 행정자치부 소관부서가 너무 많아 일부 조정이 필요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위원회는 “시와 교육청은 서로 다른 기관으로 업무 사안도 많이 다르다”며 “별도 인원이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6급 1명을 파견형식으로 교육위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산업건설위원회로 조정이 검토됐던 사회통합추진단도 현재 행정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시민안전실과 소방안전본부, 종합건설본부,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에 대한 조정 방안도 제8대 의회로 넘기기로 했다.

시의회는 다음 달 임시회에서 상임위 소관 부서 관련 조례를 개정, 최종적으로 확정

계획이다.

한때 의회의 견제와 감시대상의 사각지대라는 말을 들었던 비서실은 의원 간 논란 끝에 일단 소관 상임위 지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시는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비서실은 보좌기구일 뿐 정책결정 기구가 아니라 시의회를 전방위적으로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은 의회 운영위에 두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용, 업무 정책결정 과정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유일하게 시의회 운영위에 비서실을 소관부서로 두고 있다.

비서실은 자치행정국에 속해 있으나 4급(별정) 상당의 비서실장은 의회 출석은 물론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받지 않고 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이날 제249회 제1차 정례회 개최식을 갖고 13일까지 13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광산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관련 내용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세청, 국회 등에 보내기로 했다.

광주시의회 김옥자 의원은 “현재 서광주세무서는 인구가 76만여명에 달하는 서구와 광산구, 전남 영광군을 관할하고 있어 지역 납세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전체 업무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업무효율성이 떨어져 납세자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많다”며 건의안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뉴스&정보 브리핑

### 건강보험 의료수가 평균 2.37% 인상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금액인 ‘수가’가 내년에 평균 2.37% 인상된다. 보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가 오르면서 건강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수가는 병원 1.8%, 의원 3.1%, 치과 2.4%,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7% 등이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받는 수가(초진 기준)는 1만4410원에서 1만4860원으로 450원 올랐다. 이 중에서 환자가 부담할 금액은 4400원이다. 올해(4300원)보다 100원이 인상됐다.

### 푸드트럭 영업장소 이동 신고 간소화

푸드트럭 영업자가 영업장소를 옮길 때 신고절차가 간편해진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푸드트럭 영업자는 옮길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존의 영업신고증 등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신고증에 옮길 곳의 영업소제지 주소를 추가 기재해주는 방식이다.

### 내부 전화망 설치 신고 시·도청에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부 전화망 등 자가전기통신설비의 관리 업무를 전국 시·도에 넘기는 내용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을 2일 공포할 예정이다.

자가전기통신설비는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유선 통신시설, 한국전력의 내부 전화나 지자체의 방비 CC(폐쇄회로)TV 카메라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의 접수나 과징금 부과·징수 등 전파관리소가 처리하던 업무는 시장과 도청의 통신 관련 부서가 맡게 된다.

### 경찰, 새 근무복 전면 착용 시작

경찰이 1일부터 새로 바뀐 근무복을 전면적으로 착용하기 시작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신-구형 근무복 간 뚜렷한 차이는 상의에서 나타난다. 일반 경찰은 종전 회색 계열에서 청록색으로 색상이 바뀌었다.

일자형 태극 사괘(四卦) 무늬를 근무복 소매 양끝에 자수로 처리했고, 교통 근무복 윗옷 플래킷(트임)에는 사괘 무늬를 형상화한 장식단을 부착하는 등 디자인도 달라졌다.

/연합뉴스

## “U대회 축구장 인조잔디 입찰 하자 ... 市 책임은 없어”

### 광주지법 판결 ... 광주시 승소

법원이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축구장의 인조잔디 설치 업체 선정이 부당하게 이뤄졌지만 광주시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민사 14부(부장판사 조정웅)는 인조잔디 설치업체 A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시의 업체 선정 과정에 하자가 있었지만 이로 인해 A사가 손해를 봤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2~8순위 업체를 배제하고 9순위인 원고가 계약 상대방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가 낙찰자와 동

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시는 U대회 준비 과정에서 지난해 7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으로부터 축구장 인조잔디가 적합하지 않아 국제축구연맹의 인증을 받은 인조잔디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광주시는 이에 입찰 공고를 내고 공사 실적 등을 바탕으로 B사와 입찰 계약을 했다.

그러나 B사는 인조잔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A사가 이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원에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받아들여지면서 계약이 무효가 됐다.

A사는 입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선정, 계약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당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북의 랜드마크호텔 **특별분양!!**

마지막 회사보유분

전주 한옥마을 라마다 @ncore 호텔

RAMADA JEONJU @ncore

10년 수익보장

실투자 6천만원

월수익 100만원

계약서 발행 2분만에 완판신화!!

1899-8735

NAVER 라마다 전주 검색

2017년 명품의 가치가 증명됩니다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511-중-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